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78-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2023-2024년 겨울, 어떻게 지내셨나요?
- 겨울날씨에 대한 인식

2024. 4. 17.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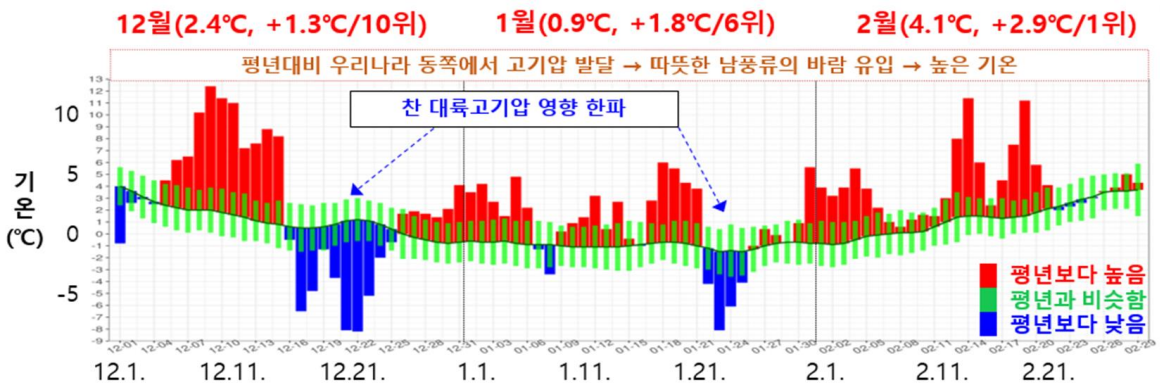
1

2023-2024년 겨울 날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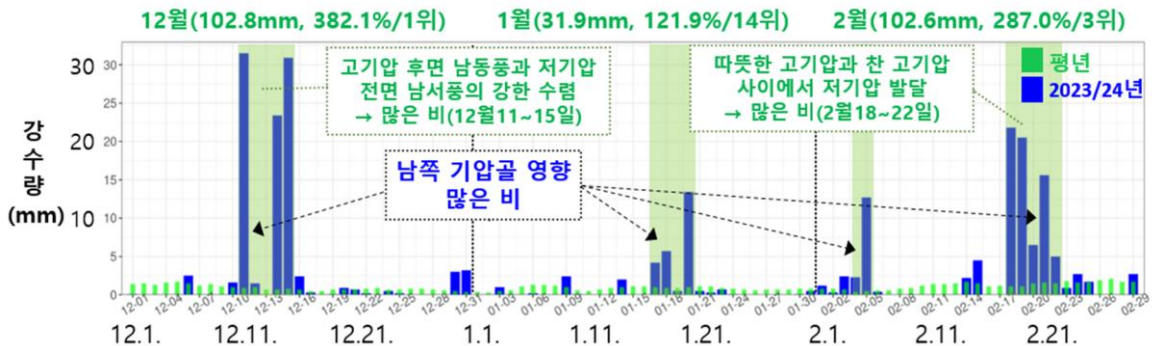
2023-2024년 겨울 평균기온 역대 2위, 강수량 역대 1위 2023년 여름에 이어 다시 한 번 극단적인 기후 보여

지난 3월 7일, 기상청은 [2023년 겨울철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한국의 2023년-2024년 겨울을 요약하는 단어는 ‘역대 최대 강수량’ 과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 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 전국 강수량은 236.7mm로 평년(89.0mm)의 2.7배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2.4도로, 평년보다 1.9도가 높았다. 이는 지난 2019년-2020년 겨울(평균기온 2.8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이다. [예년보다 무덥고 강수량도 많았던 지난 2023년 여름](#)에 이어 이번 겨울 또한 극단적인 기후를 보였다.

2023 - 2024년 겨울철(2023년 12월 ~ 2024년 2월) 전국 평균기온 분포도 및 일별 시계열



2023 - 2024년 겨울철(2023년 12월 ~ 2024년 2월) 전국 강수량 분포도 및 일별 시계열



출처: 2023년 겨울철 기후특성, 기상청 보도자료, 2024년 3월 7일,
<https://www.kma.go.kr/kma/news/press.jsp?bid=press&mode=view&num=1194338>

2023-2024 겨울, 예년보다 따뜻했다 45%, 1년 전 겨울과는 반대 인식 예년보다 눈·비가 많이 내렸다고 체감하는 사람도 47%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45%로, 예년보다 추웠다고 보는 사람(22%)보다 두 배 이상 많다. 1년 전 겨울과 비교해도,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었다는 평가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라는 평가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성별이나 연령대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했음을 다수가 체감한 것이다.

강수·적설량에 대해서도, 47%가 이번 겨울에 예년보다 눈·비가 많이 내렸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년보다 눈·비가 적게 내렸다고 보는 사람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아, 체감상으로도 눈·비가 많이 내린 걸 인식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60대(57%)와 70세 이상(55%) 절반 이상이 체감상 눈·비가 많은 겨울이었다고 느낀다.

이번 겨울 기온에 대해서는 연령대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예년보다 따뜻했다고 인식
눈이나 비가 예년보다 많이 내렸다는 인식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아

(단위 : %)

		기온			적설·강수량			
		사례수 (명)	예년보다 추웠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따뜻했다	예년보다 많이 내렸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적게 내렸다
전체		(1,000)	22	32	45	47	26	27
성별								
	남자	(496)	20	35	45	43	29	28
	여자	(504)	25	30	46	51	24	25
연령								
	18~29세	(161)	23	32	45	34	33	33
	30대	(149)	25	35	39	43	25	32
	40대	(179)	21	36	43	45	28	27
	50대	(195)	21	32	47	50	26	24
	60대	(173)	23	28	49	57	22	21
	70세 이상	(143)	21	31	48	55	23	23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4)	22	34	44	49	26	25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6)	23	29	49	44	2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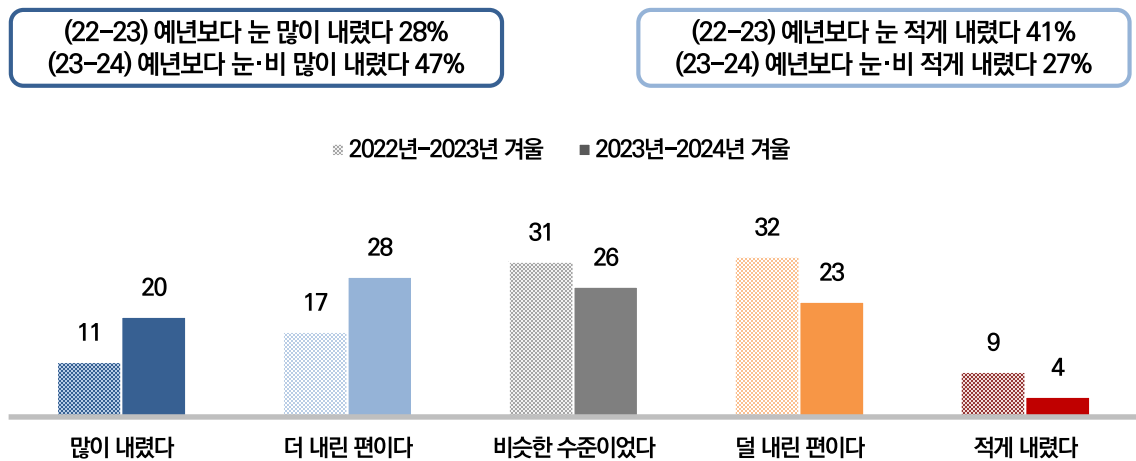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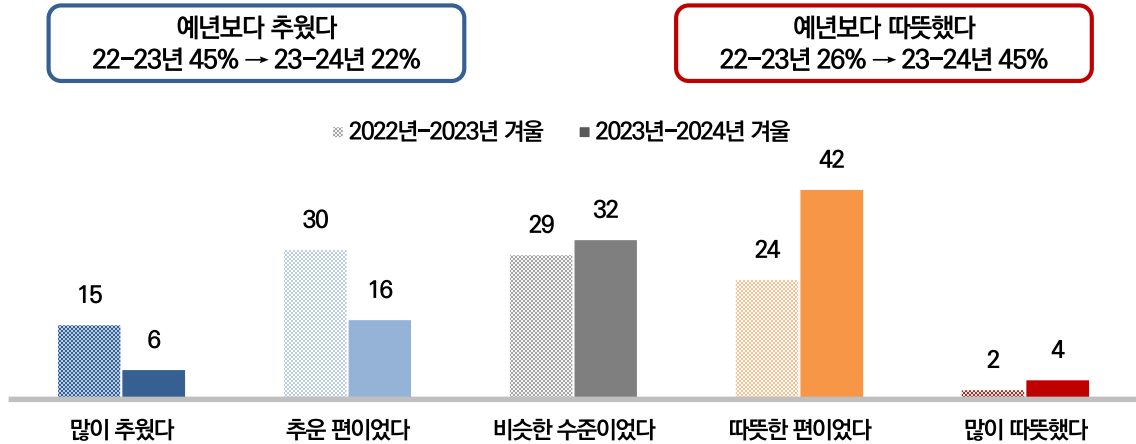
질문 : (기온) 2023-2024년 겨울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겨울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적설·강수량) 2023-2024년 겨울에 내린 눈·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내린 눈·비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4. 03. 22 ~ 25

2023-2024 겨울, 예년보다 따뜻했다 45%, 1년 전 겨울과는 반대 인식
예년보다 눈·비가 많이 내렸다고 체감하는 사람도 47%

(단위 : %)



질문 : (가온- 2023년) 올해 겨울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겨울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가온- 2024년) 2023-2024년 겨울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겨울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적설량 - 2023년) 올해 겨울 내린 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겨울에 내린 눈은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적설·강수량 - 2024년) 2023-2024년 겨울에 내린 눈·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내린 눈·비는 예년에 비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비교: 2023년에는 겨울에 내린 눈(적설량)에 대해서만, 2024년에는 겨울에 내린 눈과 비(적설량+강수량)을 물어봤음에 유의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3. 03. 24 ~ 27 // 2024. 0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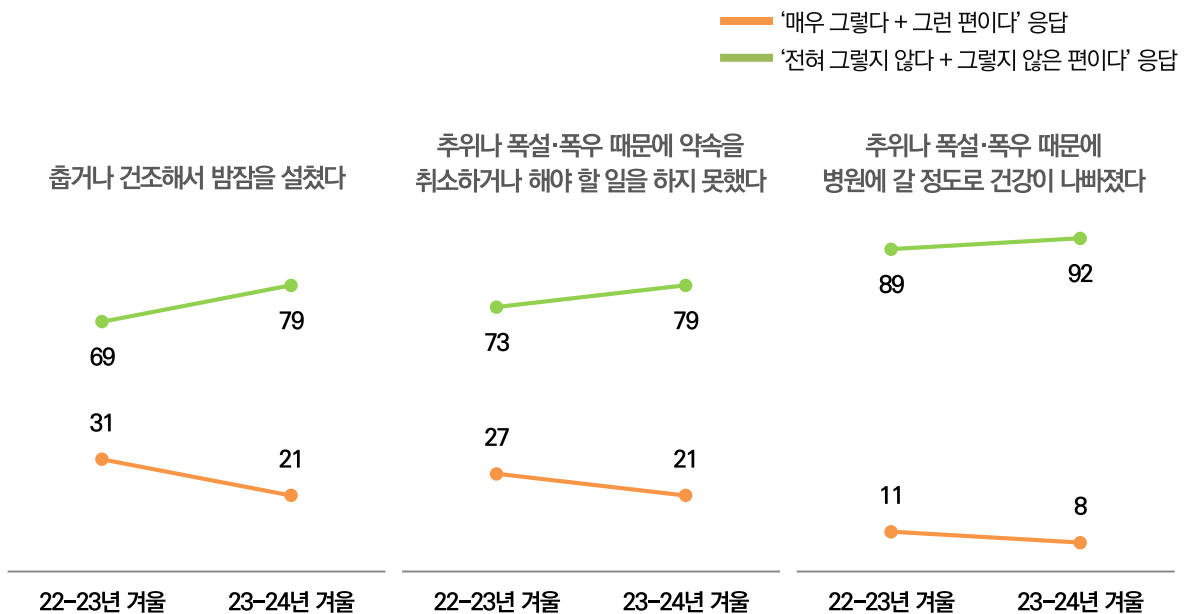
2 2023-2024년 겨울나기

10명 중 2명 정도가 겨울 날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거나 할 일을 못한 경험 있어 1년 전 대비 소폭 감소

예년보다 높은 기온, 그리고 많은 비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줬을까? 오히려 1년 전보다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겨울, 춥거나 건조해서 밤잠을 설쳤다는 사람은 21%로, 1년 전 겨울보다 10%포인트가 줄었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람도 전체의 21%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줄었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사람은 전체의 8%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줄었다. 따뜻해진 기온이 오히려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데에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10명 중 2명 정도가 겨울 날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거나 할 일을 못한 경험 있어 1년 전 대비 소폭 감소

(단위 : %)



질문: 올해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3. 03. 24 ~ 27 // 2024. 0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0대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가 이번 겨울 날씨 때문에 일상생활 불편함 겪어

(단위 : %)

	사례수 (명)	춡거나 건조해서 밤잠을 설쳤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체	(1,000)	3	21	2	21	1	8
성별							
남자	(496)	2	20	2	21	2	8
여자	(504)	3	23	2	20	1	8
연령							
18~29세	(161)	4	16	3	20	2	10
30대	(149)	4	30	4	30	3	14
40대	(179)	3	24	2	25	2	9
50대	(195)	3	23	1	18	2	10
60대	(173)	2	19	0	15	0	6
70세 이상	(143)	0	16	1	17	0	1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4)	3	23	2	22	1	8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6)	2	18	1	18	2	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10)	4	23	3	21	1	10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98)	2	22	2	21	2	8
600만원 이상	(292)	2	19	1	20	1	8

질문 : 올해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4. 03. 22 ~ 25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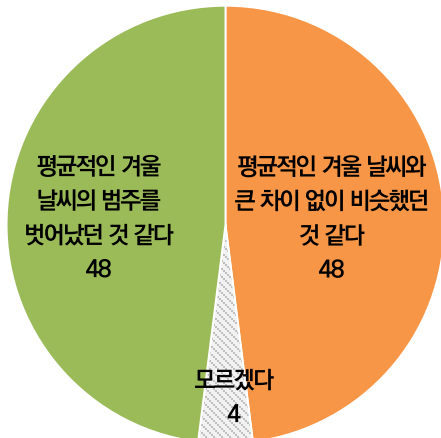
이번 겨울 날씨는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 의견 갈려 다만,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사람은 5명 중 3명(60%)

2023~2024년 겨울에는 역대 가장 많은 눈·비가 왔고, 기온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강수량과 기온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겨울 날씨의 범주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기후였음이 분명하나, 사람들의 실제 체감은 조금 다른 듯 하다. 이번 겨울 날씨가 평균적인 겨울 날씨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다고 보는 사람(48%)과, 평균적인 겨울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던 것 같다고 보는 사람(48%)이 비슷하다. 세대나 성별,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이번 겨울 날씨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극단적인 기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생활에서 직접적인 불편함을 크게 느꼈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이 이번 겨울 날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사람은 60%로, 그렇지 않다는 사람(33%)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염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날씨가 기후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사람은 여성(66%)이 남성(54%)보다 많고, 50대(64%)와 60대(68%)에서는 3명 중 2명이 기후위기를 체감했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많다.

이번 겨울 날씨는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 의견 갈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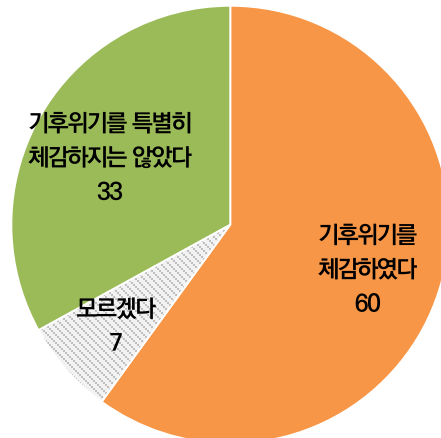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겨울 날씨는...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4. 03. 22 ~ 25

다만, 5명 중 3명(60%)은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해

(단위 : %)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이번 겨울 날씨에서...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4. 03. 22 ~ 25

남성보다는 여성이, 5·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느꼈다는 사람 많아

(단위 : %)

	사례수 (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겨울 날씨는...			이번 겨울 날씨에서...		
		평균적인 겨울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던 것 같다	평균적인 겨울 날씨의 범주를 벗어났던 것 같다	모르겠다	기후위기를 체감하였다	기후위기를 특별히 체감하지는 않았다	모르겠다
전체	(1,000)	48	48	4	60	33	7
성별							
남자	(496)	48	48	4	54	40	6
여자	(504)	47	48	5	66	27	7
연령							
18~29세	(161)	48	42	10	51	38	11
30대	(149)	54	41	6	60	32	9
40대	(179)	43	54	3	60	34	6
50대	(195)	47	50	3	64	31	4
60대	(173)	44	55	1	68	29	3
70세 이상	(143)	53	44	3	57	35	9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4)	49	47	4	61	32	7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6)	46	50	4	59	35	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10)	48	47	6	59	33	8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98)	42	55	3	64	30	7
600만원 이상	(292)	55	41	5	57	38	5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겨울 날씨는... // 이번 겨울 날씨에서...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4. 0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2월 기준 약 91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10,395명, 조사참여 1,49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9.6%, 참여대비 66.7%)
조사일시	• 2024년 3월 22일 ~ 3월 2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